

도교육청, 도내 주요 학과 지원 가능점수 발표

국어·수학 영향력 ↑ 영어 1등급 비율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시 정시 모집인원 확대 예상
16일 '2024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 지원 전략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을 '불수능'으로 보고, 수시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아진다면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해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수험생은 정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높은 학과에서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148점으로 전년도 최고점에 비해 각각 16점, 3점이 높고, 특히 국어영역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했다.

12일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내 주요 학과 지원 가능 점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모든 수험생에게 배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도내 대학 주요 학과 지원 가능 점수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2과목)영역의 표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수시 이월 인원, 대학별·영역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영어의 1등급 비율이 4.71%에 머물면서 영어로 인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탐구의 표준점수는 높지 않아 교차지원(과학탐구 응시 수험생의 인문계열 학과 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대학별 반영표준점수에 의해 조절될 여지는 있다.

먼저 의예과 일반전형은 415~417점, 지역인재는 이보다 낮은 405~407점, 치의예과 일반전형은 410~413점, 지역인재는 이보다 낮은 402~405점을 예상했다. 한의예·약학과는 405~415점, 도내 인문계열 국어·영어교육과는 350~353점, 자연계열 간호학과·수학교육과는 352~356점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서는 14~21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수도권 의예과는 416~435점의 높은 점수가 예상되면서 의약학계열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올해 정시에서는 의치한약 계열 및 수도권·지역거점국립대의 합격선이

특히 올해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화상 진화 상담도 마련했다. 화상 진화 상담은 원격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며, 대면상담과 함께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된다. 대면상담 예약은 전북 진보진학센터 홈페이지(http://www.jbc.go.kr/jimro) 등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환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위촉직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갖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법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이다. 협의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현장정책기획단 하반기 워크숍

올 한해 운영 결과 공유·내년도 운영 계획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전주 라투체 세미나실에서 현장정책기획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현장정책기획단과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2024년 운영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올해 전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10대 핵심과제 중 현장에서 가장 잘 적용된 과제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현장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정

책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4년 현장정책기획단을 더욱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운영팀 정책기획과장은 “교직원 모니터링 활동과 정책제언을 통해 전북 교육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장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교육, 더 힘차게 추진할 터”

서거석 교육감, 교육특례 법안 발표 자율학교 운영·농어촌유학 등 포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교육특례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특례에는 자율학교운영,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자율학교운영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 특례며,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은 지역여건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이 이양받는 특례다. 또 농어촌유학은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례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

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의 교육특례는 교육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며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40여 개 조항을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아 전북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을 통해 전북교육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2차 특례 발공에도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은성 기자

‘유학생 5000명 유치’... 전북대, 모로코 주요 대학과 교류

카디아야드대학 등 3곳 찾아 잇달아 국제교류 협약 체결

유학생 5천 명 유치 계획을 밝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모로코대학들과 잇달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유학생 5천 명 유치 계획을 밝힌 전북대학교가 모로코 대학들과 잇달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븐토파일 대학을 찾은 양오봉 총장 일행이 학생 세부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주요 대학을 방문해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있는 양오봉 총장은 프랑스 주요 대학 방문에 이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모로코를 찾아 주요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논의중이다.

이날 양 총장은 모로코 주요 대학 중 하나인 카디아야드대학(Universite Cadi Ayyad)을 찾아 이 대학 Belaid Bouaguir 총장을 만나 학생 교류를 위한 세부 협정(MOA)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에서 양 대학은 앞으로 학생 교환과 함께 공동연구, 교수 파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이 대학과는 학·석사 복수학위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모하메드6세 공과대학(Mohammed VI Polytechnic University)을 방문해 이 대학 Hicham El Habti 총장을 접견했다. 양 대학 총장들은 2차전지와 스마트팜, 그린에너지 분야에

특히 이 대학에 설치된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의 수료식에 참석해 초급 79명, 중급 44명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 수료자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전북대 필링코리아’를 홍보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인 ‘JBU 국제센터’를 이 대학에 설립하는 방안을

대한 공동 연구와 지역 산학협력 방안, 그리고 학생 교류와 국제 인턴십, 복수학위제 등을 논의했다. 내년 4월 모하메드6세 공과대학 총장이 직접 전북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사피 하사니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가 전북대 글로벌대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만큼 전북대와 모로코 간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며 “모로코 주요 대학들과의 실질적인 학생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전북대의 유학생 5천 명 유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K-태권도 명품학과로 새로운 도약 꿈꾸다

전주대, 기독교 종합대학 미국 언더우드 대학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1일 대학 본관에서 미국 기독교 종합대학인 언더우드(Underwood)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11일 대학 본관에서 미국 기독교 종합대학인 Underwood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박진배 총장과 홍성덕 대외부총장, 언더우드 대학 윤석준(Richard Yoon) 총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대학은 태권도학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 교류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실시 △학술

정보 및 자료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태권도학과(학과장 이숙경)는 전북의 대표 콘텐츠인 K-태

권도를 중심으로 태권도 세계화 및 글로벌(Global) 태권도 문화전파자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언더우드 대학(Richard YOON)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한국학’ 학위를 신설하면서, 한국어 전공과 태권도 전공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자 전주대와 MOU를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향후 방향성 논의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12회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2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보고서를 학교 현장에 더욱 빠르고 친밀하게 공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제12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에서는 3가지 주제로 정책동향연구를 발표했다.

먼저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을 주제로 교육주체의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분야로 학생과 학부모는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교직원들은 ‘생태전환 관련 교육’을 1순위로 꼽았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도내 직업고 졸업(예정)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1순위로, ‘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를 2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시기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정신건강 리더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해외 사례를 조망해봤다.

마지막으로 교육동향분석에서는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된 전북은라이프학교 등을 포함해 각종 학교, 대안학교 등을 법제적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14일 민주시민교육 교육학습공동체 성과 공유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2023년 민주시민교육 교사연구회와 사제동행 성과 나눔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나눔회는 민주시민교육 사례 발표, 인성·평화·환경 교육분야 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그간 참여교사와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시민역량을 키워왔다.

이날 배려와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주제로 운영한 부안고등학교가 학생 인성수준 분석을 통해 수업효과를 검증했던 인성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공유한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 학교공동체를 운영한 군산중앙초등학교가 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발표한다. /장은성 기자

위도중, 올해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 선정

위도중학교(교장 김수안)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학교 구현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1차 사례보고서 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동영상 심사 등을 거쳐 43개의 우수사례 중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4개교를 선정했다.

이에 위도중학교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가진 한계를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 모든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뤄냈다. /장은성 기자